

군산 중앙여고 '새들처럼', 철새 먹이 보호 활동 나서

금강에서 외래종 제거해 철새 먹이인 '새섬매자기' 가 안정적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힘써

군산 금강철새조망대와 함께 군산 중앙여고 철새보호동아리 '새들처럼'이 겨울철새 먹이인 새섬매자기 보호활동에 나서 화제다.

철새 보호 연합동아리인 '새들처럼'은 군산중앙여고 철새보호동아리 원더버즈와 식물재배 동아리인 스프라머가 연합해 금강의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들처럼은 지난 4월 29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사)에코맘코리아가 주관하는 제11회 생물다양성 청소년 리더 공모전에 선정되어 5월부터 생물다양성 보존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새의 먹이가 되는 새섬매자기 연구를 위해 화현면 월연리 새섬매자기 자생지를 탐방 조사하던 중 외래종인 털물참새피가 대

규모 군락을 형성해 토종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 외래종 퇴치작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총 3회에 걸친 외래종 퇴치작업으로 털물참새피 15포대 분량을 제거하여 새섬매자기가 안정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외래종 제거 작업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과 철새보호활동에 계속해서 앞장 설 예정이다.

황병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비쁜교과일정에도 철새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학생들의 노력이 대견하다"며 "그들의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철새보호 활동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금강철새조망대와 함께 군산중앙여고 철새보호동아리 '새들처럼'이 겨울철새 먹이인 새섬매자기 보호활동에 나섰다. 위 사진은 외래종인 털물참새피를 학생들이 제거하는 모습

강용구 의원, 남원 송동면 송내마을 주민으로부터 감사패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은 16일 남원시 송동면 송내마을 주민으로부터 마을회관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송내마을 김종은 노인회장과 황우연 이장은 마을 주민을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강용구 의원이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 하였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주민 복지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었기에 준공식을 기념하여 감사한 마음을 패에 담아 드리게 됐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강용구 의원은 "지역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주민분들과 어르신들이 직접 주신 이 감사패는 다른 어떠한 상보다 값진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임실경찰서강진파출소, 민·경 합동 환경보호 캠페인

임실경찰서(서장 이후신) 강진파출소(소장 최윤철)에서는, 덕치마을방범대와 임실 덕치면 장산마을 앞 삼진강변을 찾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가드 캠페인과 자전거도로 약 10Km(장산마을~천담수퍼)에 환경보호 운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활동은 휴가철 막바지 물놀이를 위해 찾은 피서객들에게 "물놀이 안전사고 및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홍보물을 나눠 주며 준법의식에 기여하고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병병 등 각종 쓰레기를 청소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활동을 병행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을지연습 기간동안 '특별안보전시회' 개최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신준태)은 16일 2016 을지연습 기간동안 임실군 청 1층 로비에서 특별안보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을지연습을 계기로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우리고장 호국영웅과 한미동맹의 발전과 성과, 유엔 참전국 지원현황 등을 패널로 전시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애국심 함양을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익산경찰, 계곡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आय회 개최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은 익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와 함께 지난 15일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 전북 완주군 동산면 소재 계곡에서 북한이탈주민 위로하고 조기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आय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익산서 김성중 서장 신규병 보안협력위원장 북한이탈주민 등이 참석, 물놀이 등 आय회를 통한 조기정착 지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홍보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만찬을 나누며 서로간에 친목을 다졌다.

또한 आय회를 통하여 익산경찰서와 보안협력위원간의 결속력 강화 및 향후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 사회정착을 위해 대책 강구등에 대하여 논의 등을 하였다. आय회에 참석 한 북한이탈주민 한00(여, 39세)은, "항상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북한이탈주민을 격려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무더운 여름에 아들과 함께 이런 좋은 시간과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루 빨리 사회에 정착하겠다"며 너무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김성중 서장은 "앞으로도 보안협력위처럼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조기 사회정착 합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임실군 운암면, 저수지 제당 풀베기 및 잡목제거

임실군 운암면은 학암제를 비롯한 관내 8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예초기와 기계톱을 동원해 제당 주변 및 수변지역 풀베기를 전반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면은, 계속되는 폭염과 산발적인 호우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 제거를 위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저수지 현자관리인 10여명과 가을철 농작물수확 및 농기계안전운행을 위한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학암제 인근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씨(67세)는 "무성하게 자란 잡초로 잦은 유해동물 출현과 농기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다"며 "말끔해진 저수지를 보니 마음의 짐을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현기 면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에 전념한 현자관리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생활불편해소와 적기 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운암면은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저수지 제당을 비롯한 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www.jnmaeil.com 2016년 1월 29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주)6699 전주신문(주) 22-4층 (서노동동)

부회장 김승근 전무 김관춘

•대표전화 288-9700 •입문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 | | | |
|--------------------|--------------------|--------------------|--------------------|
| 전주지사 010-9865-418 | 중앙지사 010-9868-6674 | 남원지사 632-3886 | 고창지사 566-6899 |
| 심천지사 010-2333-4798 | 인후지사 246-6855 | 김제지사 547-6855 | 임실지사 010-9862-2725 |
| 서신지사 272-9477 | 송천지사 255-2404 | 완주지사 246-6855 | 진안지사 439-3084 |
| 호주지사 010-6865-9835 | 팔복지사 256-6884 | 남원지사 632-0885 | 정읍지사 536-9787 |
| | 군산지사 446-0767 | 순창지사 659-0444 | 장수지사 010-3862-8197 |
| | 익산지사 659-9923 | 부안지사 010-2425-4182 | 무주지사 010-2330-4258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 동산동 새마을부녀회, 어르신초청 호나눔 삼계탕 봉사

동산동(동장 이남철) 새마을부녀회(회장 정영주)에서는 16일 말복을 맞아 우신아파트 경로당에서 관내 어르신 100여명을 초청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 봉사를 실시했다. 삼계탕 봉사를 주관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체력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찜통같은 날씨 속에서 삼계탕 봉사에 구슬땀을 흘렸다.

정영주 부녀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건강하고 즐거운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상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